사업보고 Monthly Report

4월 4일, '빼앗긴 서울대에도 봄은 온다.'는 슬로건의 전체 학생총회가 있었습니다. 학교당국이 학생들에게 보여준 기만에 맞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2천여 명의 학우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낙인 총장 퇴진과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기조를 유지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에 저항하며 153일간의 본부점거투쟁을 이어왔으나, 학생들이 마주해야 했던 것은 학교당국의 폭력침탈이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 2등 총장 성낙인이 만든 학생 없는 대학, 교육 없는 대학,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학내구성원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대학에 반기를 들 것을 결의한 것입니다. 또한 돈에 얽매여 진행되는 시흥캠퍼스의 기반은 잘못됐으며,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의 철회 없이는 시흥캠퍼스의 전면적인 재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생사회의 뜻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총운영위원회가 이런 학우들의 의지를 받아 안지 못하고 총회를 폐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재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예측으로 요구안 실현을 위한 행동방안 결정의 건인 3안의 의결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재투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행동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미뤄버린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총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의 위상도 총학생회 산하기구의 수준이라 많은 학우들이 실망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생총회를 통해 학생들의 뜻을 확인했고, 학생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받아 안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힘찬 대중투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대 학생회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대, 세상을 더하다: 여성인권편

'사회대, 세상을 더:하다-3월'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주의'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가시화,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의 표출로서의 여성주의에 대한 논의가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3월 사세더에서는 '여성대통령 박근혜?', '정부기관 행정자치부의 여성에 대한 "개체 수 통제"를 논하다.', '임금차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라는 세 주제를 중심으로 여성주의에 관한 최근 이슈들을 정리한 자보신문을 제작, 사라지와 게시판 곳곳 등에 부착하였습니다

본부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

새 학기를 맞아 본부를 점거하는 학우들의 의견과 생활상을 듣는 인터뷰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본부를 점거한 지 100일이 넘어가면서 본부점거본부는 많은 학우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10월 10일의 뜨겁던 열기를 회상하며 본부점거에 힘을 보태려는 생각도 있지만, 본부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가도 되는지에 대한 걱정은 언제나 학우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대 학생회는 지금까지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본부점거본부의 '생활'을 취재하여 멀게만 느껴지던 투쟁을 가까운 곳으로 끌어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선실천단

청년의 삶에서부터 시작해 기존 정치에 대한 토론과 대안을 고민하고, 우리의 고민을 실질적 변화로 만들 수 있는 행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대선실천단'을 모집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1차 모임에서 '박근혜정권의 퇴진과 대선'이라는 주제로 내부 세미나를 진행하여 박근혜 퇴진 이후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이 무엇일지 논의해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대선실천단 출범 자보'를 냈습니다. 이후에도 2차 모임에서는 '광장의 힘, 청년학생들은 어떤 행동과 성과를 이뤄왔을까?', 3차모임은 '학내투쟁-학외투쟁의 분리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총 3번의 내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청년들의 힘과 지금까지의 청년의제들이 어떻게 공론화되었는지 확인하고, 우리의 삶 속에 민주주의가 실존하기 위한 방향성을 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대선실천단은 대학에서의 청년들의 삶, 사회에서의 청년들의 삶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고민해볼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청년들의 삶, 곧 우리의 삶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불어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_^!